

▶ 종목 정보

현대차 (005380 KS, 393,000)

목표주가 700,000원 78.1%

BUY

기아 (000270 KS, 129,600)

목표주가 210,000원 62%

BUY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자동차 (OVERWEIGHT)

6월 유럽 전기차 판매: 테슬라의 깜짝 2위 등극

- 유럽 전기차 침투율은 6월 40.6%로 상승. 상반기 누계 침투율은 37.1%로, 전기차 판매가 유럽 전체 수요를 견인.
- 유럽 시장 내 중국 전기차 M/S는 25.8%로 VW(19.8%)를 6%p 이상 상회. VW의 전기차 M/S는 처음으로 20%를 하회.
- 테슬라 판매가 5.3만 대 및 M/S 9.3%로 2위 등극. FSD 승인 국가가 늘어나면서 판매 견인

WHAT'S THE STORY?

전기차 수요, 성장세 재가속: 6월 유럽 전기차 수요는 57.1만 대(+36.3%YoY)로 침투율 40.6% 기록.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은 25.8%로 유럽 로컬 1위 업체인 VW의 19.8%를 크게 상회.

- **6월 유럽 전기차 수요:** 57.1만 대(+36.3%YoY, +28.0%MoM)로 침투율 40.6%(+6.9%pYoY) 기록. 전체 유럽 시장 수요는 140.7만 대(+13.2%YoY). 상반기 누계 전기차 수요는 268.1만 대(+31.4%YoY), 침투율 37.1%로 전년 동기(29.9%) 대비 7.2%p 상승. 시장 전체 성장률(+6.1%)의 5배 속도.
- **BEV 단독 기준으로도 급증:** ACEA 기준 6월 유럽(EU+EFTA+영국) BEV 등록 대수는 36.1만 대(+51.0%YoY), 상반기 160.8만 대(+35.1%YoY). 독일(6월 +78.2%), 프랑스(+93.5%), 이탈리아(+86.6%)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짐. 독일·영국·프랑스 3대 시장의 6월 BEV 비중이 모두 28~30% 수준까지 상승.
- **중국 내수는 급랭, 수출은 사상 최대:** 6월 중국 승용차 소매는 160.2만 대(-23.2%YoY)로 내수 부진 심화. 반면 6월 자동차 수출은 103.7만 대로 월간 기준 최초로 100만 대 돌파(CAAM). NEV 수출은 52.3만 대(+160%YoY)로 처음으로 전체 수출의 50%를 상회. 상반기 수출 509.6만 대(+65.3%YoY), NEV 수출 235.5만 대(+120%YoY). 내수 둔화를 수출로 돌파하는 구조가 고착화. BYD는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 증가로 5월 이후 전체 판매는 증가세 전환.
- **유럽 시장 내 중국 전기차 M/S 25.8%:** 6월 14.7만 대(+75.5%YoY) 판매. 상반기 누계로는 67.7만 대(+81.0%YoY), M/S 25.2%(전년 18.3%). 다만 6월 M/S는 5월(26.9%) 대비 1%p 하락했는데, 이는 중국 업체의 부진이 아니라 분기 말 테슬라와 유럽 로컬 업체의 밀어내기 효과.
- **성장의 과실, 해외업체로:** 6월 유럽 전기차 시장은 +15.2만 대YoY 증가. 이 중 중국 브랜드가 6.3만 대로 증가분의 41.7%를 차지. 테슬라가 6만 대로 40%를 차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

6월, 테슬라의 깜짝2위 등극: VW(11.3만 대) > 테슬라(5.3만 대) > BMW(4.8만 대) > BYD(4.8만 대) > 스텔란티스(4.4만 대) 순. 분기 말 인도 집중으로 테슬라가 2위를 회복했으나, 분기 말 효과가 없는 달에는 BYD가 이미 상위권을 위협.

- **테슬라 M/S 9.3%(-0.8%pYoY), FSD 승인 국가 확대 효과:** 6월 판매 53,246대(+25.9%YoY, +85.5%MoM). 모델Y가 34,328대(+43%)로 유럽 전체 BEV 판매 1위, 모델3가 18,176대(+67%)로 2위. FSD(Supervised)는 네덜란드 RDW의 형식 승인(4/10)을 기점으로 리투아니아(5/20), 에스토니아(5/29), 덴마크(6/9), 벨기에(6/10)로 상호 인정 확산.
- **VW M/S 19.8%(-4.3%pYoY), 사상 첫 20% 하회:** 6월 판매 112,986대(+11.8%YoY)로 절대 1위는 유지했으나 시장 성장률(+36.3%)을 크게 하회. 2025년 4월 27.9%를 피크로 14개월째 하락. 7월 9일 VW은 모델 변형(variant)을 최대 75% 축소하고 생산 능력을 연 900만 대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구조조정안 발표. 팬데믹 이전 약 1,200만 대에서 이미 200만 대를 감축했으며, 유럽·중국에서 추가 감축 예정. 2030년까지 독일 내 5만 명 감원 계획(2026년 3월 발표)도 진행 중. 상반기 글로벌 인도는 413만 대(-6.3%YoY), 중국 인도는 -26%YoY. 다만 유럽 전기차 인도는 +8.4%, 유럽 BEV 수주 잔고는 2025년 말 대비 +50%로, 하반기 ID.Polo/ID.Cross 투입 시 반등 여지.
- **BYDM/S 8.3%(+1.5%YoY), 현지화는 지연:** 6월 판매 47,544대(+67.1%YoY, +13.7%MoM). BMW에 근소하게 밀려 4위. 주목할 변화는 헝가리 세게드 공장 조립 개시가 4분기로 재차 지연된 점(6월 10일 Stella Li 부회장, 로이터). 현재 설비 설치 단계로 당초 계획 대비 약 1년 지연. 첫 생산 모델은 Dolphin Surf. 더불어 10억 달러 규모 터키 공장 프로젝트는 보류하고 제2의 유럽 거점을 물색 중. 관세 회피를 위한 현지 생산 시점이 늦춰진 만큼,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에 상계 관세가 계속 적용되는 구조. 그럼에도 판매가 +67% 성장했다는 점은 가격 경쟁력의 깊이를 보여줌.
- **중국 업체 전반: 유럽 현지 생산 본격화:** 6월 중 Chery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유무역지대에서 Ebro Automotive와의 합작 공장 M1 라인을 가동(길이 696m, 97개 공정, 대당 약 75분). 6월 중국 NEV 수출에서 BYD 170,897대(M/S 34.2%), Chery 73,819대(14.8%), Geely 61,550대(12.3%), 테슬라 차이나 36,171대(7.2%) 순. Geely의 NEV 수출은 +713%YoY로 급증.
- **현대차 M/S 2.4%, 기아 M/S 3.8%, 양사 디커플링 지속:** 6월 현대차 13,525대(+0.4%YoY), 기아 21,705대(+66.5%YoY). 시장이 36% 성장하는 국면에서 현대차는 사실상 제자리. 중저가 전기차 라인업 부재 영향. 아이오닉3는 7월 2일 일반 모델이 공개되었고, 튀르키예 공장에서 여름부터 생산 개시. 영국·네덜란드 등 주요 시장에서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으며, WLTP 기준 주행거리는 스탠다드 344km/롱레인지 496km, 예상 시작가는 약 3만 유로대. 기아는 슬로바키아 생산 EV2를 축으로 5개 전기차 라인업 체제를 갖추며 산업 수요 성장률을 상회 중.

참고)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완화 움직임

유럽은 미국과 다르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형식 승인이 필요. 규제 당국이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그 기능은 도로에 올라갈 수 없음. 유럽의 안전규정은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의 표준으로 사용됨. 유럽에서 자율주행을 허용하면, 다른 국가로 확산도 정해진 수순. UN은 6월 24일 회의에서 3가지 규정을 통과시킴. 통상 표결 후 6개월 뒤에 발효됨에 따라, 2027년 초에는 효력 발생 예상.

반면, 미국은 자기 인증 체계, 제조사가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준수를 스스로 선언하고 출시. ADAS 조항을 다루는 FMVSS가 없어서 사전 승인 절차가 없음.

- **(1) ADS(Autonomous Driving System) 규정, 1958·1998 협정 이중 트랙 동시 성립:** 제네바가 1월 세션에서 채택·상정한 안건이 6월 24일 표결에 부쳐져, 1998 협정 하 UN GTR(예상 번호 GTR 제26호)과 1958 협정 하 신규 UN Regulation(예상 번호 UN R185)이 병행 성립. 성능 수치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조사가 안전성을 입증하는 세이프티 케이스(safety case) 방식으로, ADS는 '불합리한 안전 위험이 없어야 하며 유능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 이상의 수준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원칙. 안전관리체계(SMS) 구축, 시뮬레이션·트랙·실 도로 3단계 검증, 운행 중 지속 모니터링과 사고 보고가 의무. 미국·중국·EU·일본·캐나다·영국이 지지.
- **(2) 기존 UN 규정 약 90개 일괄 개정:** ADS 규정과 함께 기존 UN 규정 약 90건이 개정되어, 전통적 운전 조작장치가 없는 차량에도 기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화. 조향휠·페달 없는 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로보택시 전용 차종(사이버캡 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
- **(3) UN R171(DCAS) 02 시리즈 개정, 테슬라 FSD Supervised의 실제 관할:** FSD Supervised는 Level 2이므로 ADS 규정이 아니라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 규정(UN R171)의 적용을 받음. 이번 02 시리즈(DCAS Phase 3)는 고속도로 밖 도심 도로에서의 시스템 개시 조향(System-Initiated Manoeuvre, 시스템 제안 차선변경 포함)을 확대 허용하고, 운전자 주시 모니터링·속도 제한 준수·안전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다만 여전히 L2 규정으로, 운전자의 책임 이전은 허용되지 않음. 노르웨이는 hands-off 상황과 시스템 개시 조향의 확대가 DCAS를 ADS에 지나치게 근접시킨다는 유보 의견을 제기.

참고) 주요 국가 전기차 부양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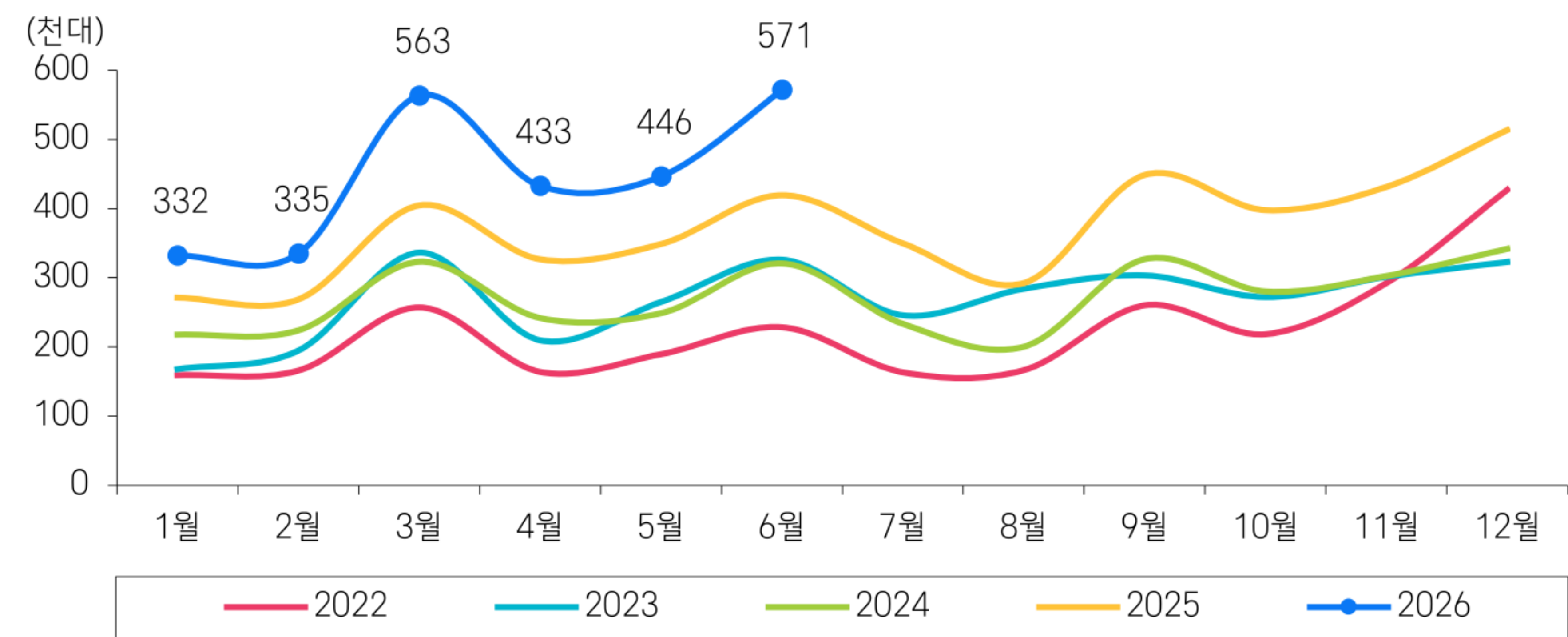
2025년 하반기에 유럽 주요 국가의 전기차 수요 부양책 재도입: 독일은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에 이어 리테일 전기차 보조금도 재도입.

- **독일, 2025년 7월부터 대대적인 법인 전기차 육성 정책 실행:** 1)2025년 7월~2028년 말까지 법인 전기차에 대해 조기 감가상각(첫해 40%, 둘째 해 24% 등 총 6년에 걸쳐 상각) 허용. 2)법인 전기차 구입 시 차량 가격의 40%까지 세액 공제(최대 9.5만 유로) 3) 2035년까지 전기차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4) 법인 전기차를 임직원 개인이 사용할 경우, 차량 가격의 0.25%만 소득세로 부과. 내연기관차의 경우 1%. 유럽은 법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전기차 수요에서 법인 차량 비중은 40%. 2025년에 독일의 전기차 수요는 88.5만 대(+51.8%YoY) 기록.
- **독일, 2026년에 개인 구입 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 재도입:** 2023년 12월에 중단되었던 보조금을 재도입. 과거의 보편적 지원과 달리 가구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1)가구당 연 과세 소득 8만 유로 이하가 기본 자격이며,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소득 기준 5천 유로씩 상향. 최대 9만 유로까지 허용. 2) 순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3천 유로~최대 6천 유로(중저가 전기차 가격의 10~15%). PHEV와 EREV는 1.5천 유로~4.5천 유로.

- **프랑스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인 프랑스는 2025년 9월 30일부터 저소득 가구 대상 전기차 리스 제도 재도입. 프랑스의 소셜 리스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한 달 만에 예산(6억 5천만 유로) 조기 소진으로 중단된 바 있음. 당시 해당 정책으로 약 한 달간 5만 대 리스 수요를 견인. 2025년에 프랑스의 전기차 수요는 47.4만 대(Flat YoY) 기록.
- **영국, 2025년 7월 16일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 영국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전기차시장. 7억 파운드의 구매 보조금과 6300만 파운드의 충전 인프라 투자, 생산 밸류체인 보조금 예산 발표. 2029년까지 운영 예정으로, 차량 가격 3.7만 파운드 이하 전기차에 대해 1,500~3,750파운드 지급. 2025년에 영국의 전기차 수요는 73.5만 대(+28.7%YoY)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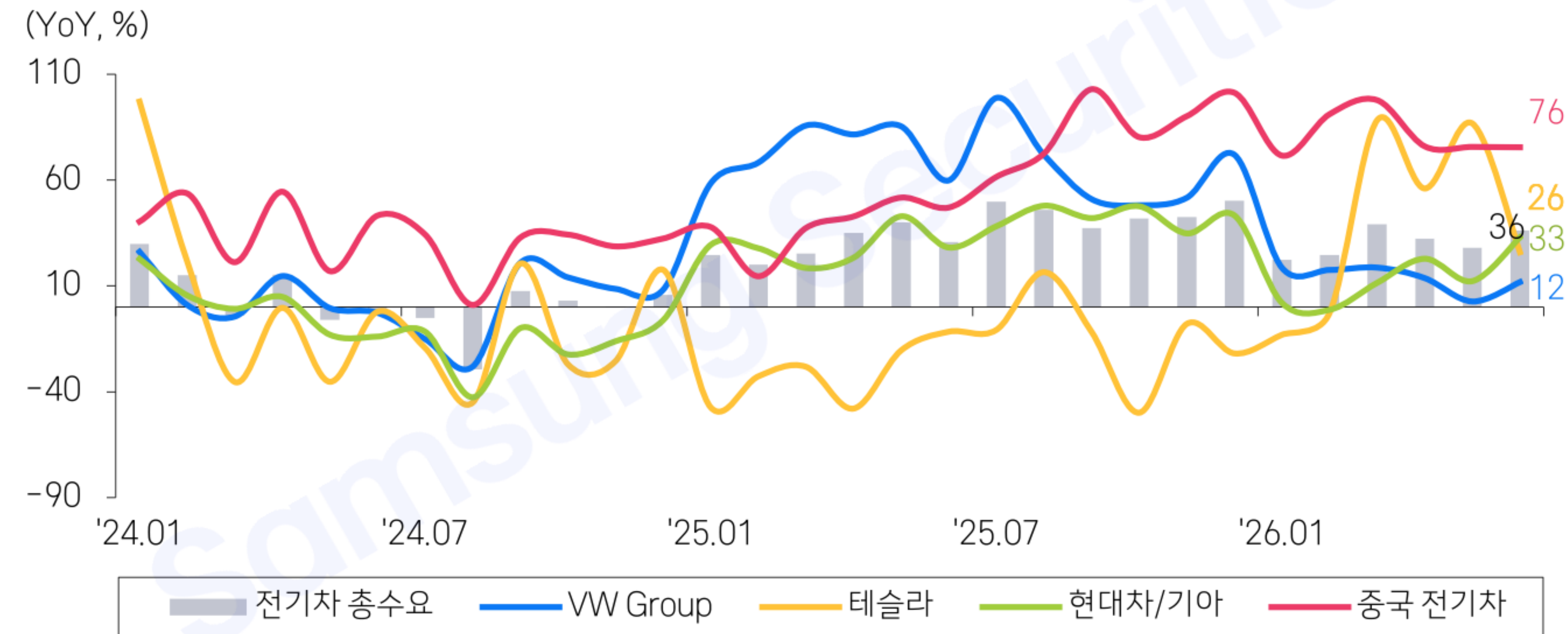
Samsung Securities

유럽(EU+동유럽): 전기차 수요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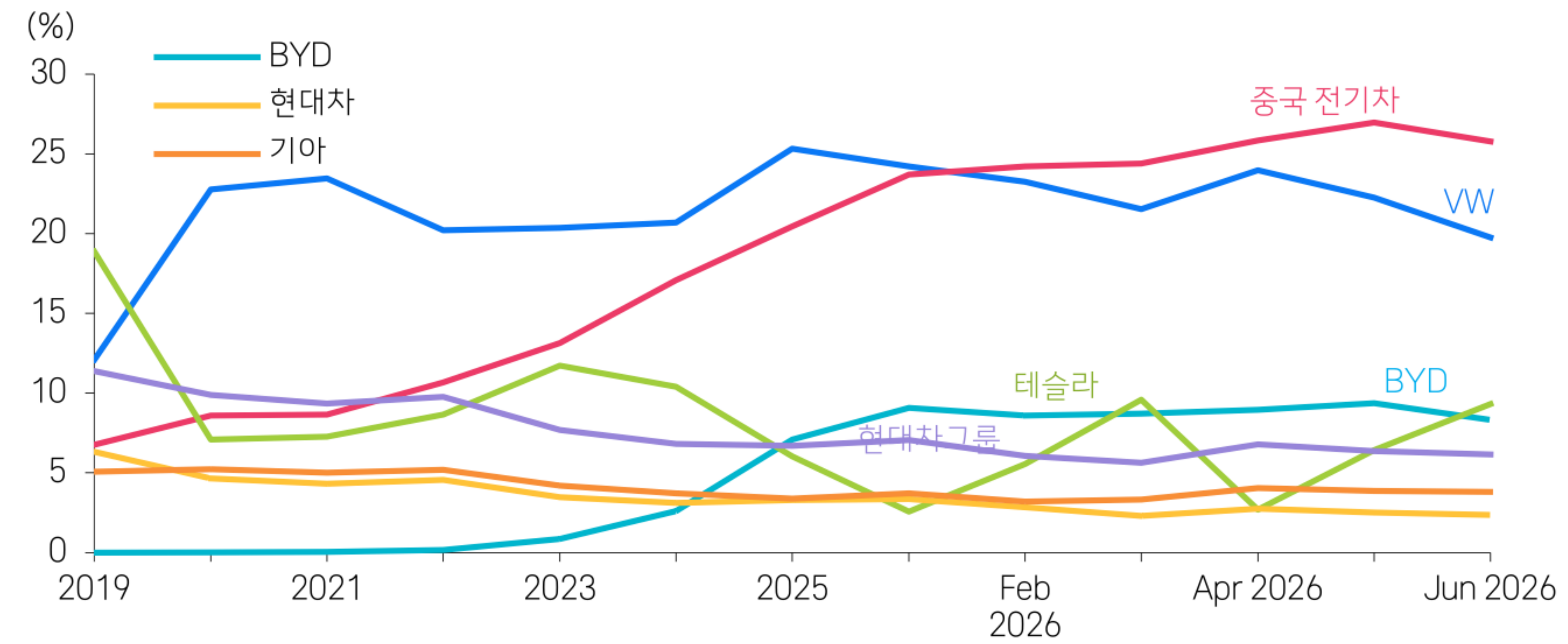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EU+동유럽): 주요 업체 YoY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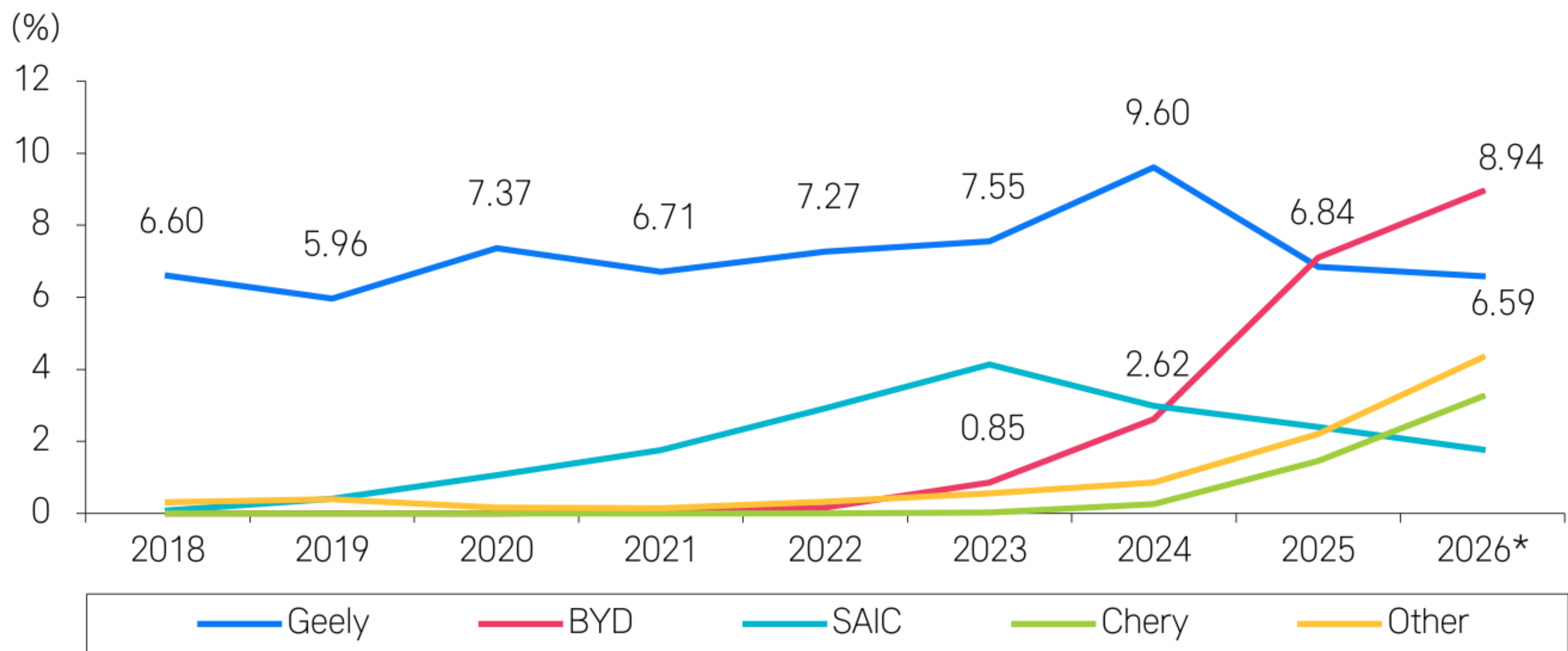
자료: Marklin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주요 업체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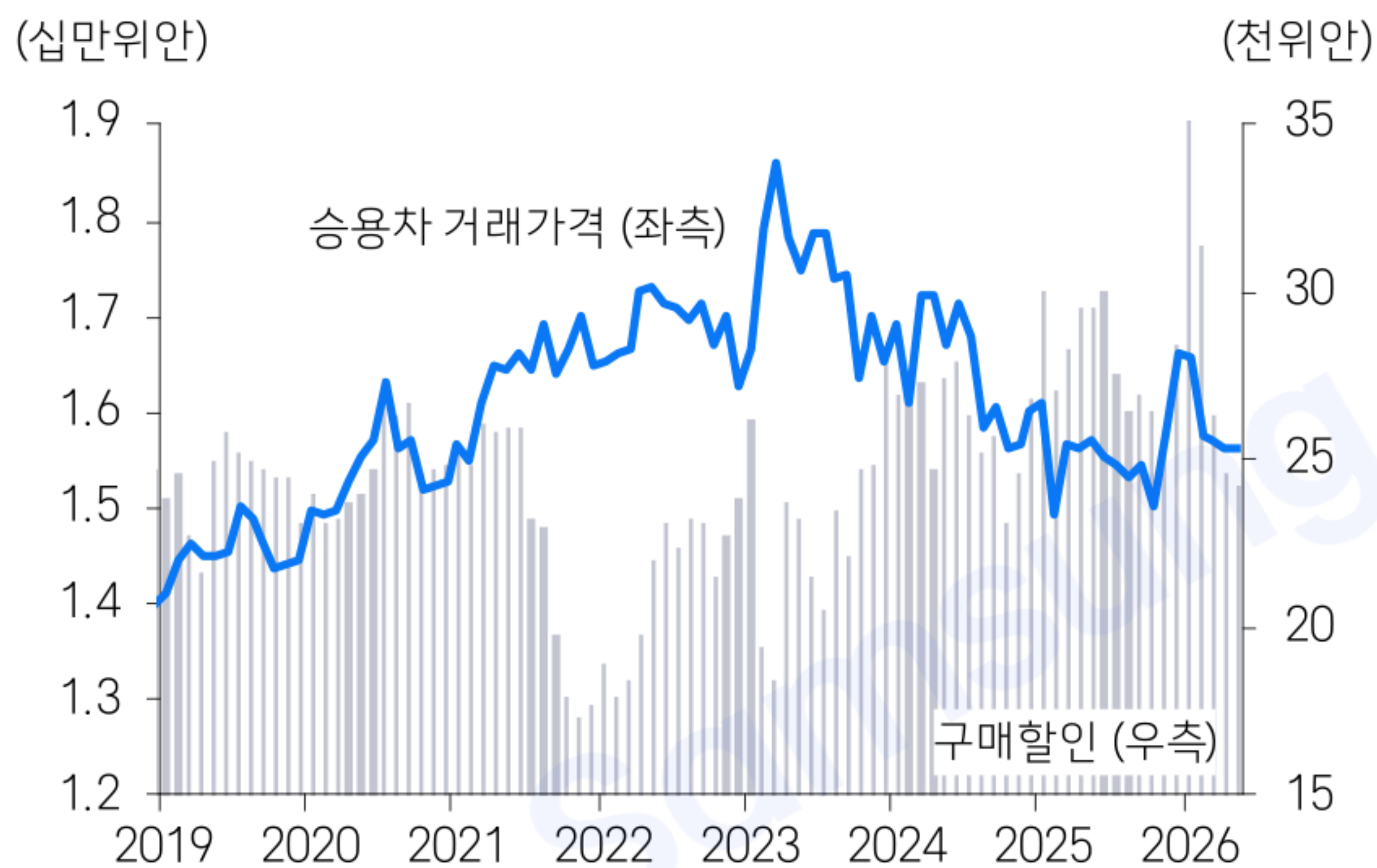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시장: 중국 업체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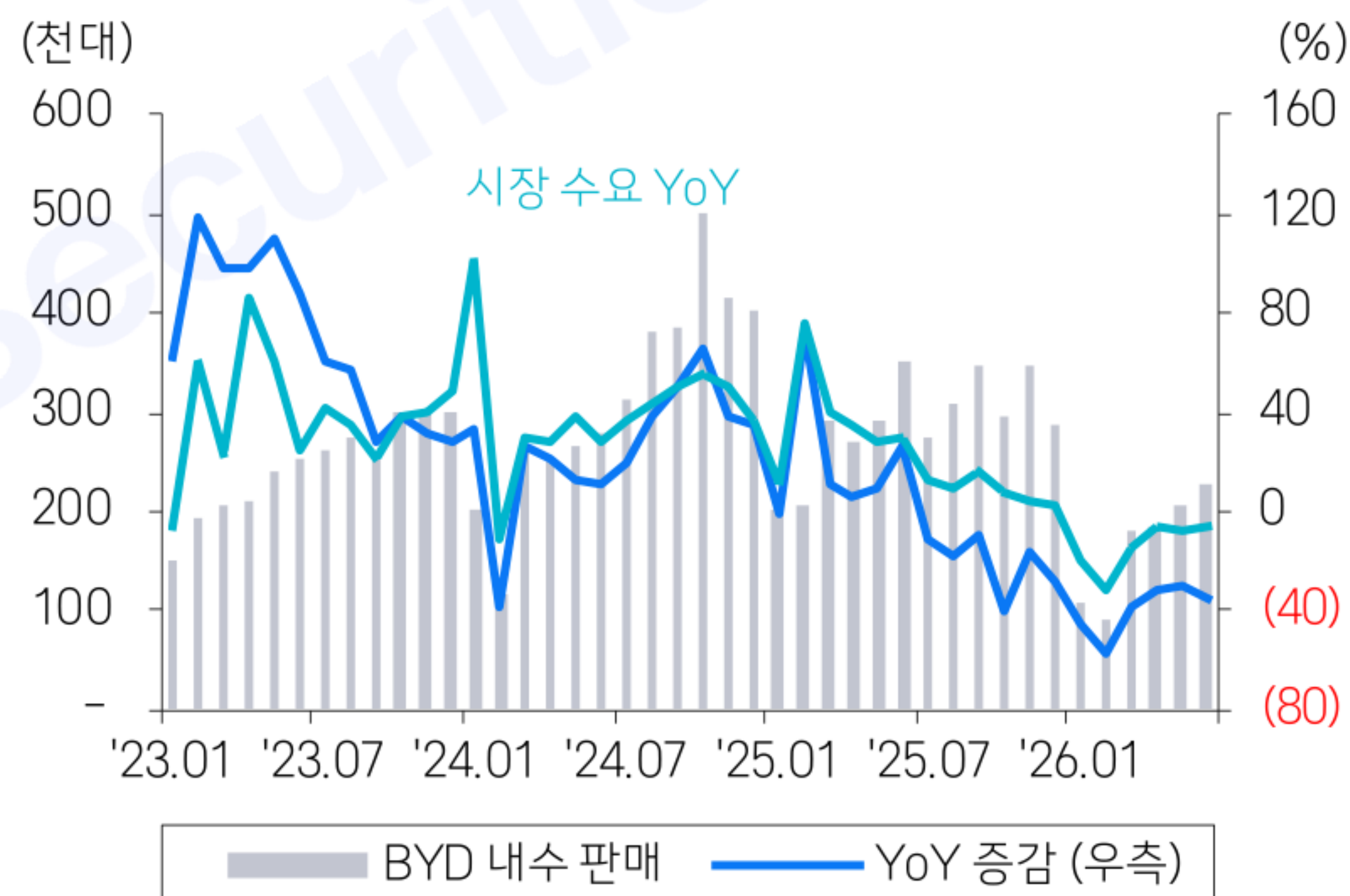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중국 시장: 승용차 거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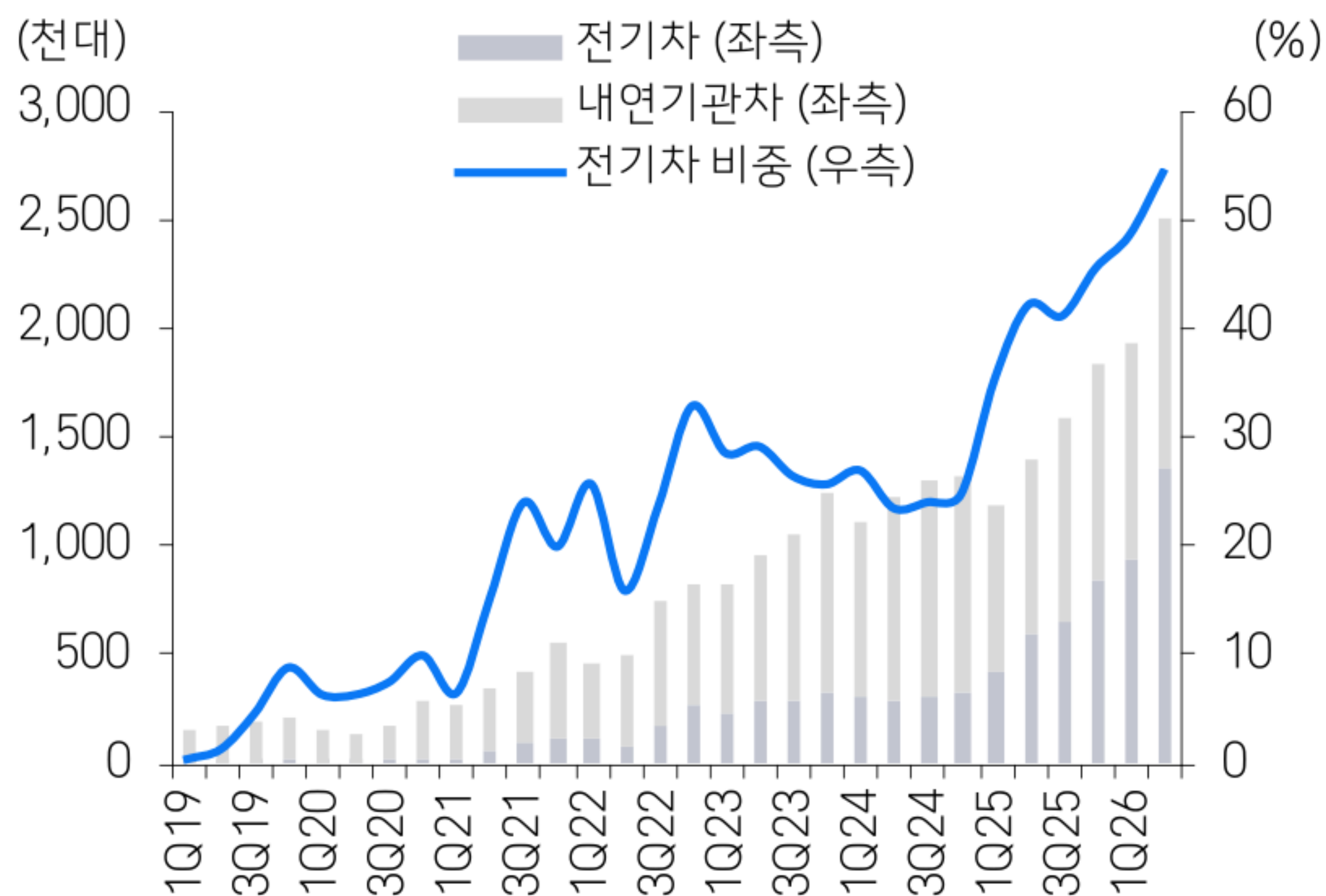
자료: Wind, 삼성증권

BYD: 중국 내수 판매 10개월 연속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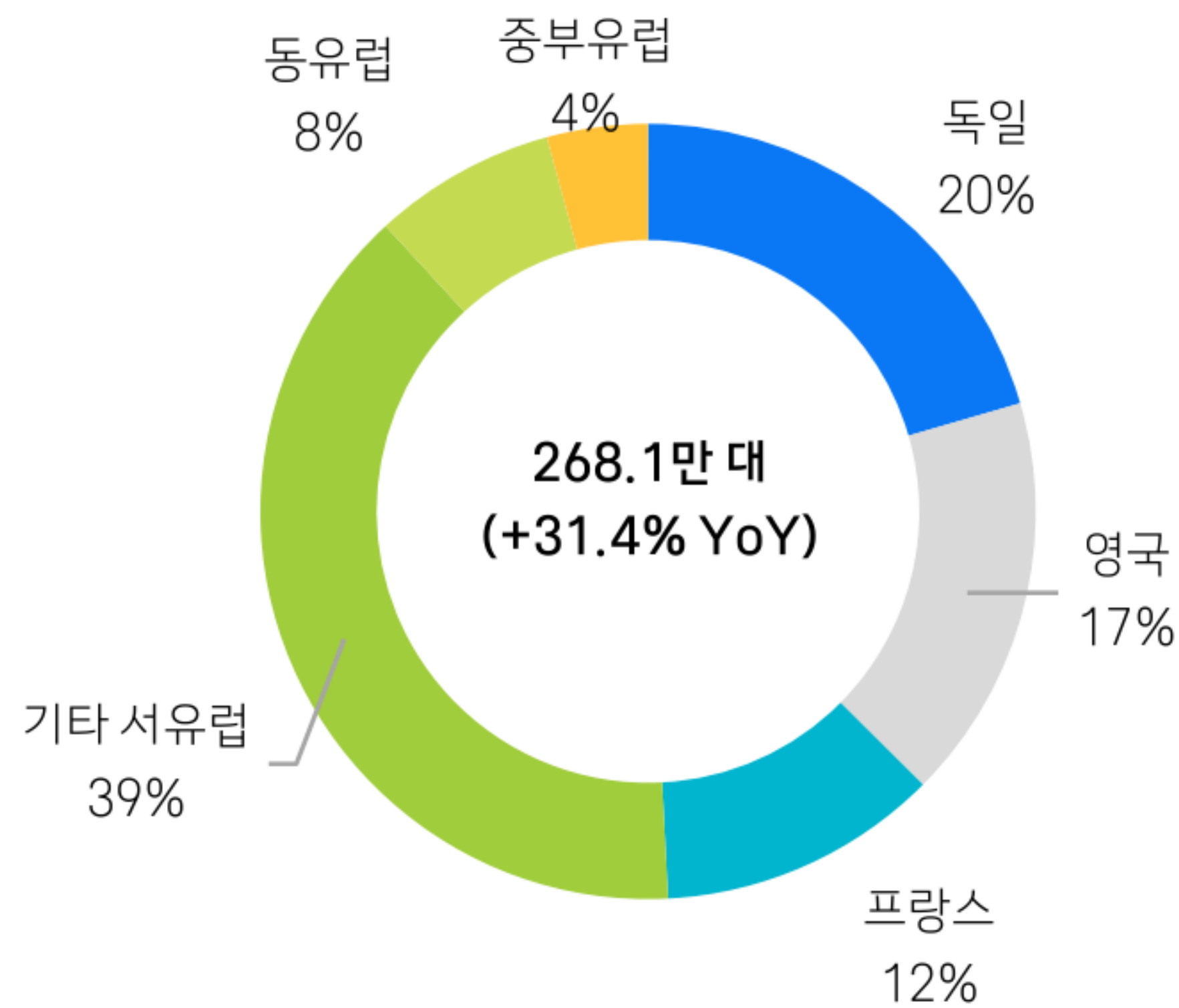
자료: CPCA, 삼성증권

중국: 자동차 수출



자료: CEIC,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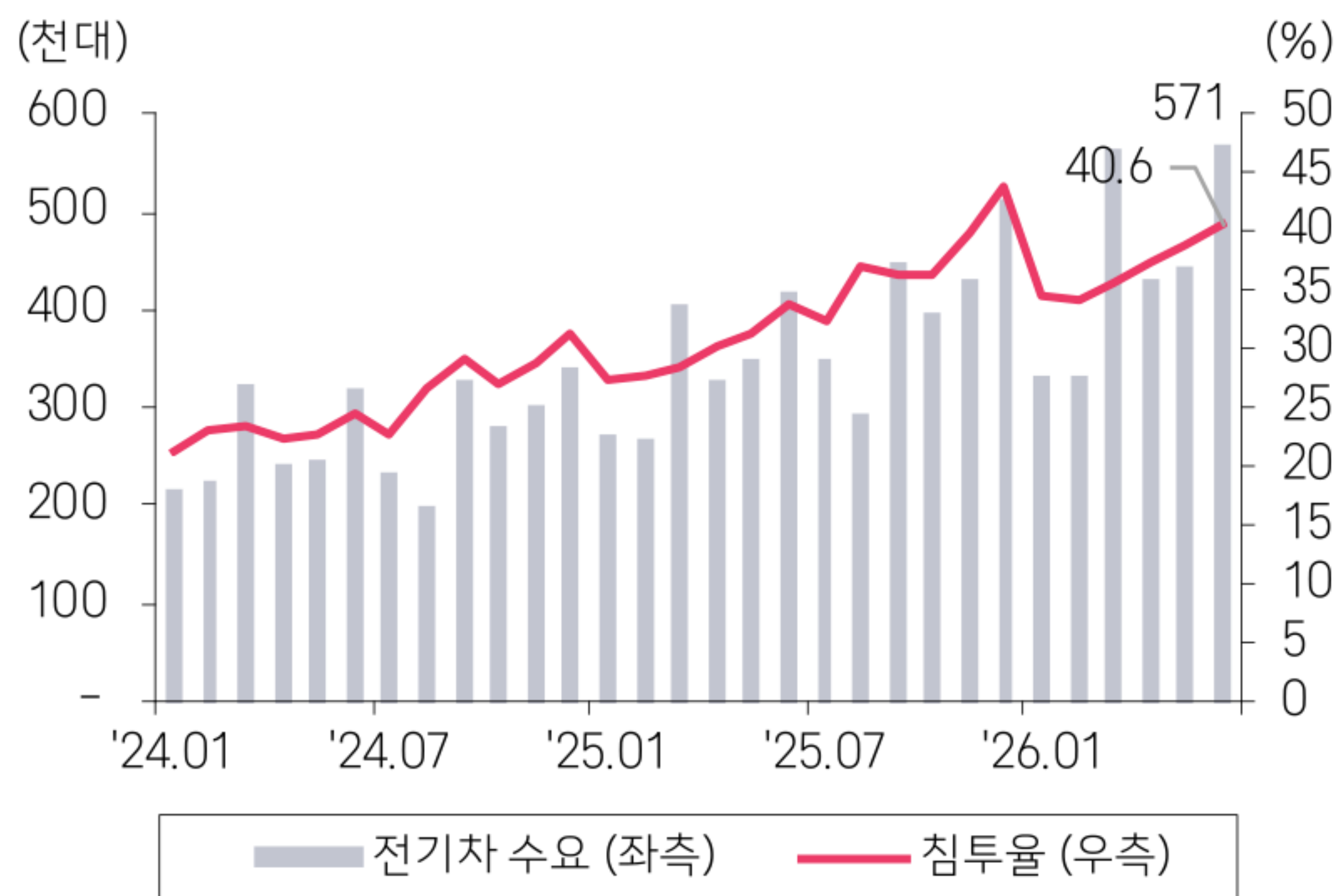
유럽: 국가별 전기차 수요 비중



참고: 6월 Y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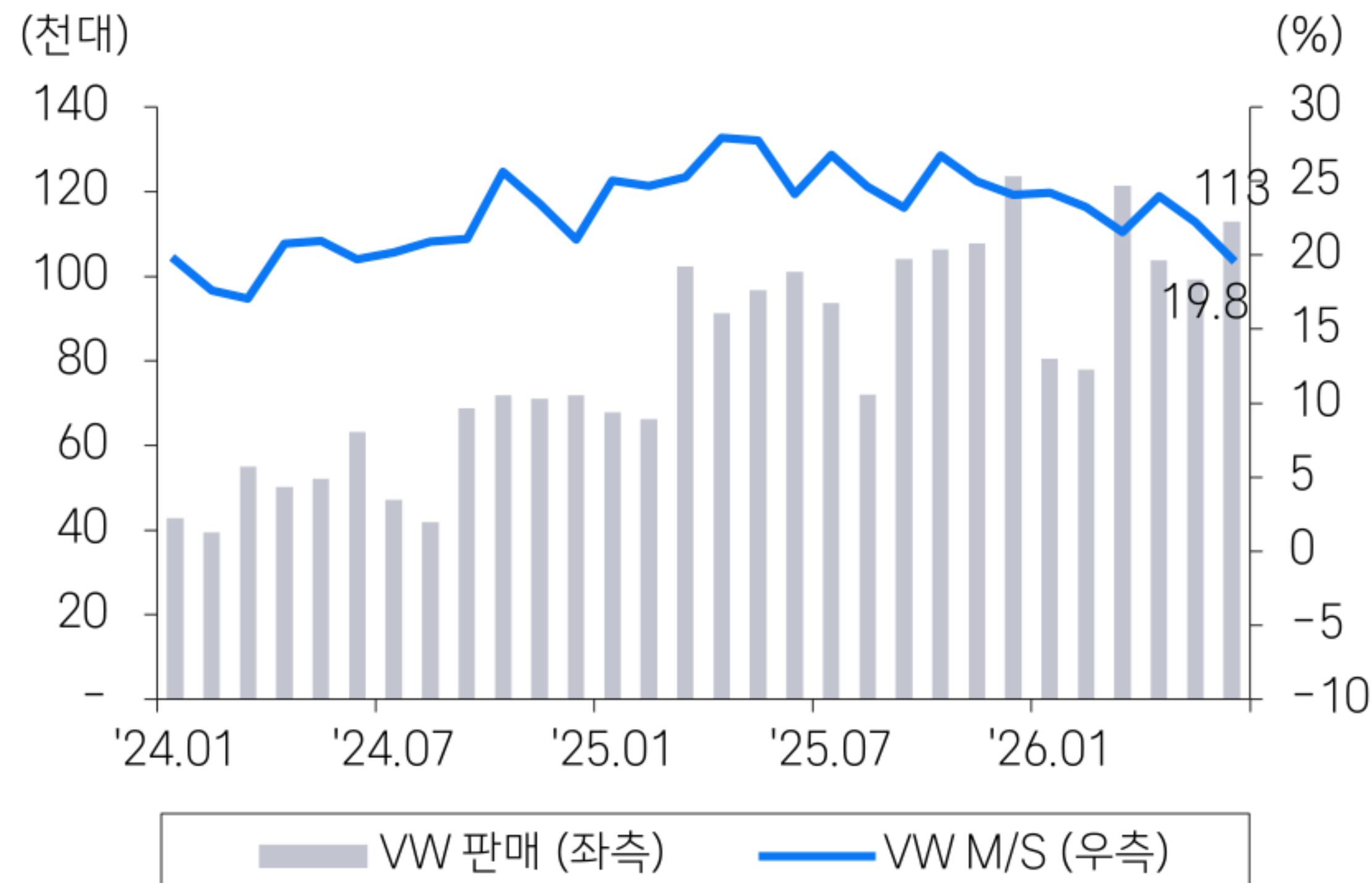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전기차 수요 및 침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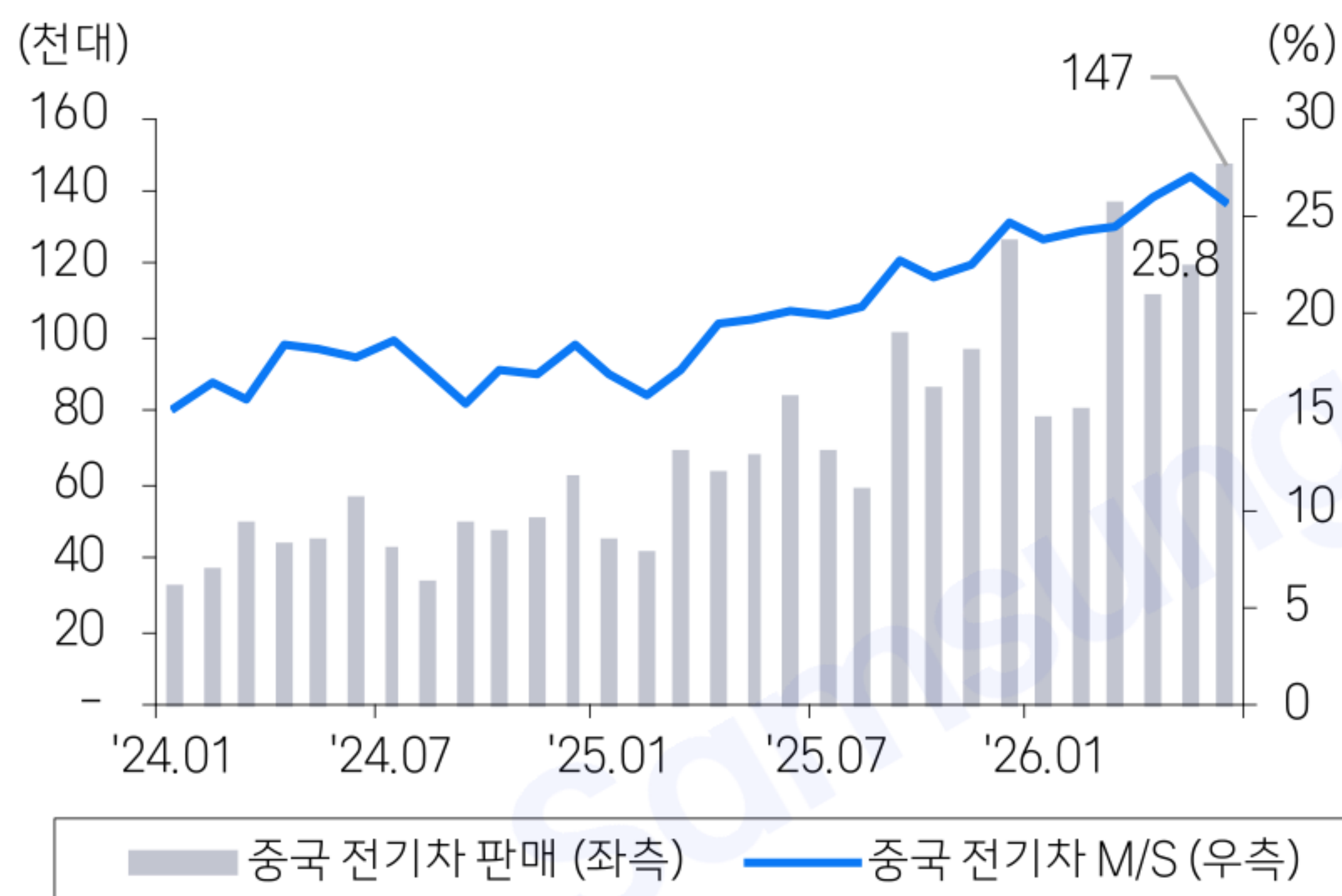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시장: VW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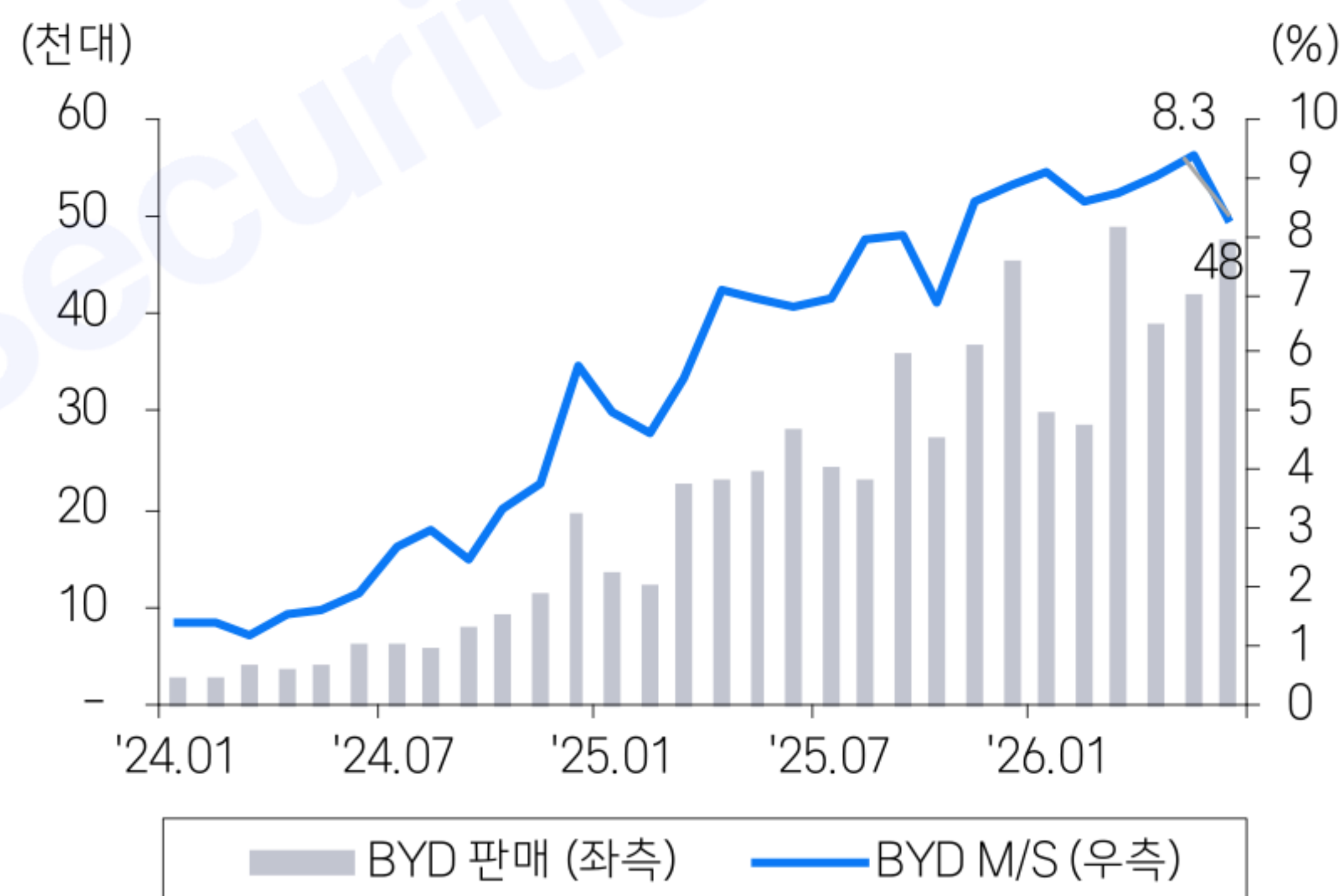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중국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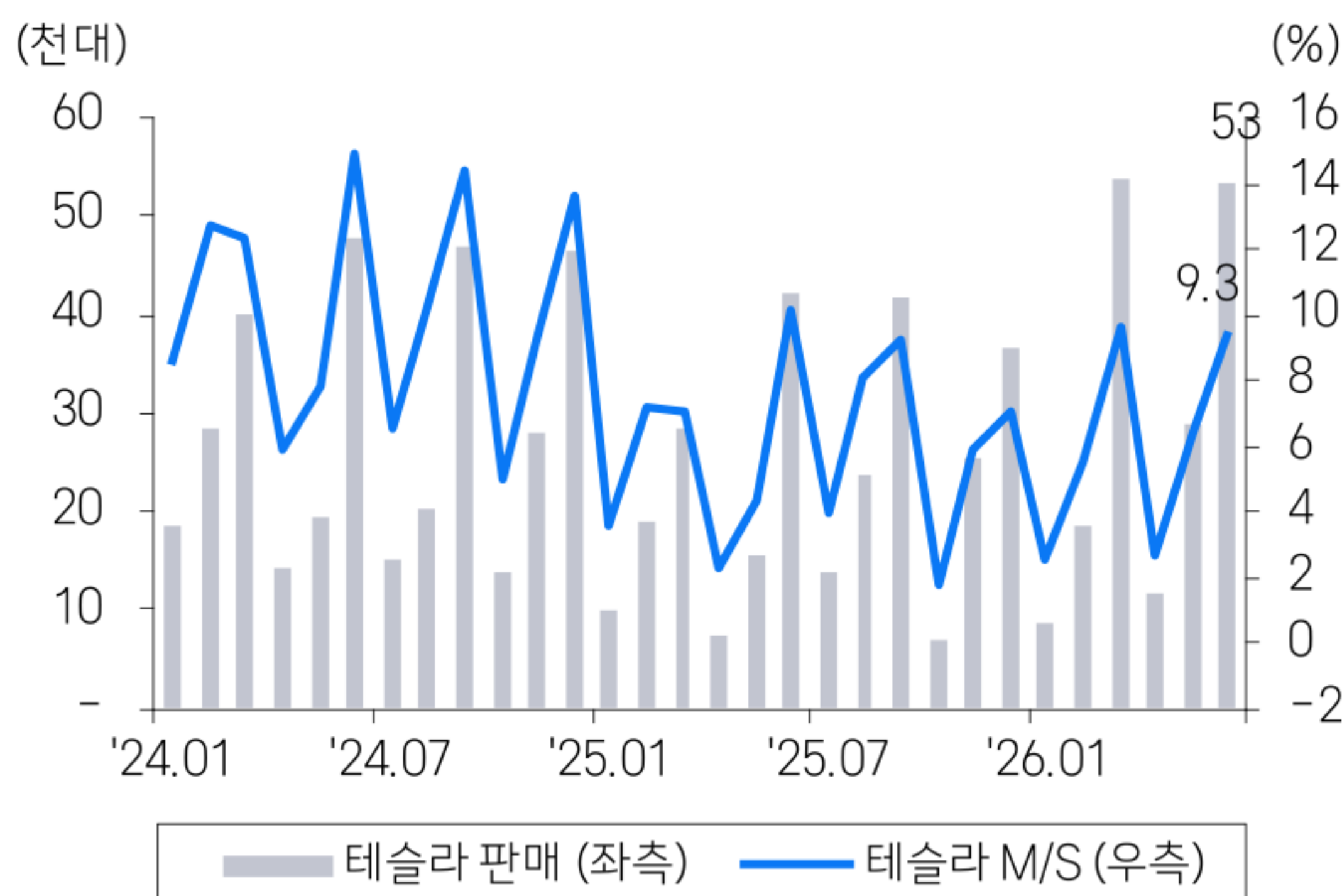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BYD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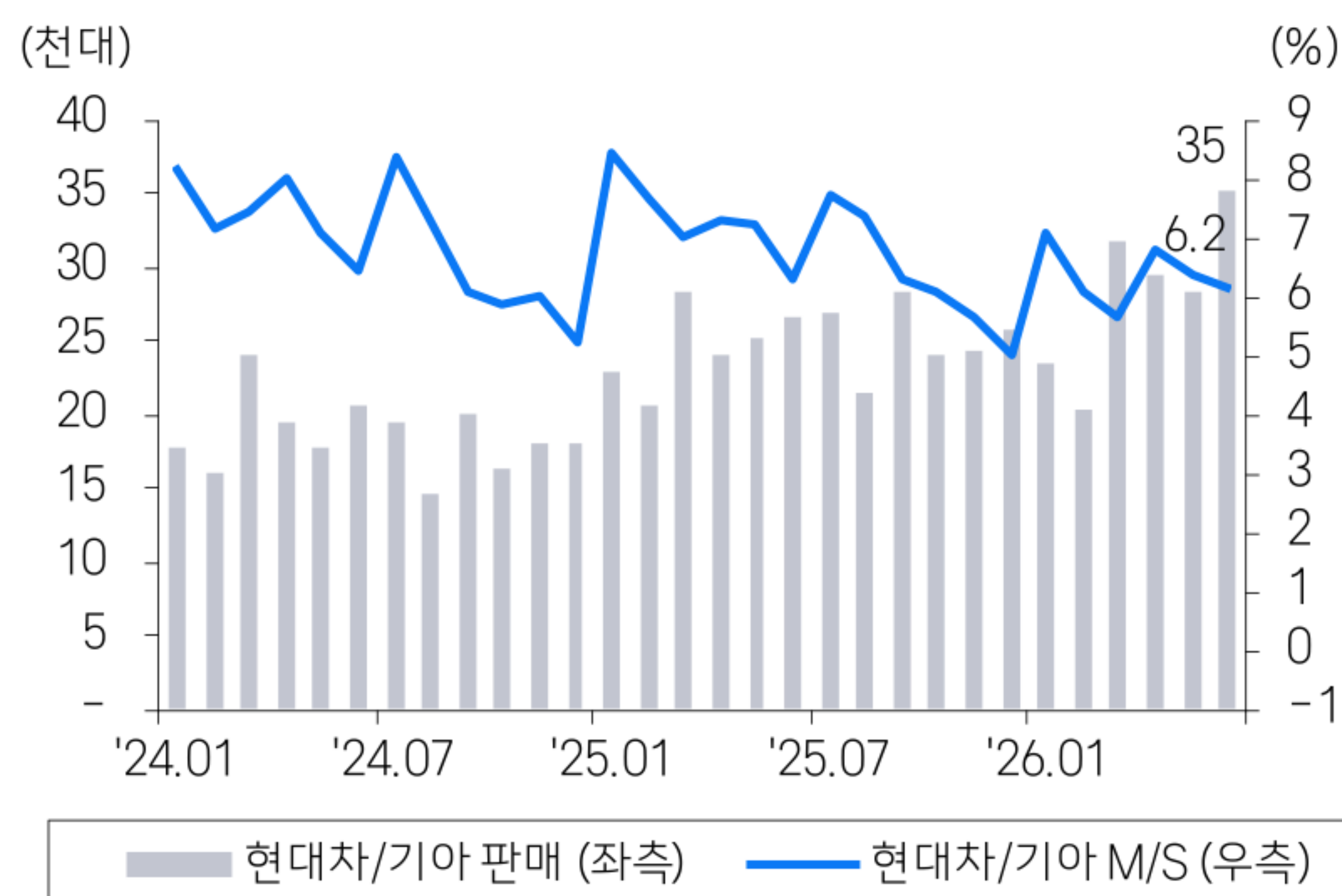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테슬라 판매 및 M/S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유럽 시장: 현대차/기아 전기차 판매 및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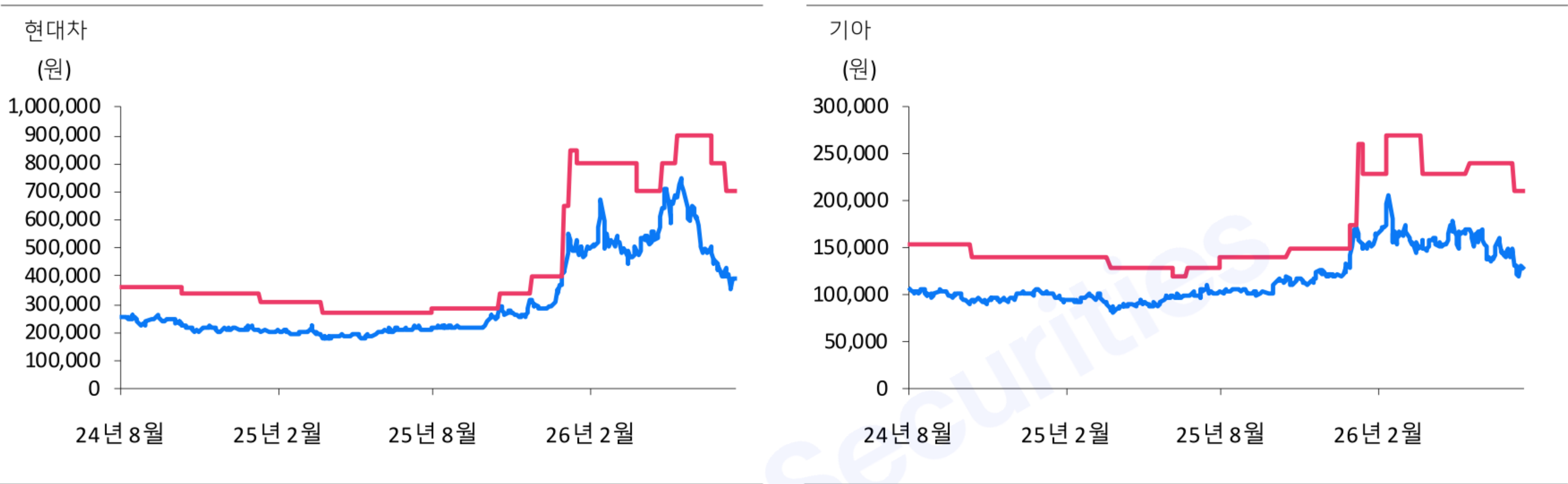


자료: EV-Volumes,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8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8월 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2년간 목표주가 변경 추이



최근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 (수정주가 기준)

현대차												
일 자	2024/7/26	10/25	2025/1/24	4/7	8/14	10/31	12/8	2026/1/14	1/22	1/30	4/7	4/10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360000	340000	310000	270000	285000	340000	400000	650000	850000	800000	800000	700000
괴리율 (평균)	-32.30	-37.27	-34.90	-26.06	-20.49	-20.69	-22.55	-27.91	-40.91	-35.99	-37.66	-23.42
괴리율 (최대or최소)	-28.06	-33.38	-28.39	-17.41	-7.02	-7.35	1.50	-15.54	-37.88	-15.75	-36.50	-12.43
일 자	5/11	5/27	7/7	7/23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TP (원)	800000	900000	800000	700000								
괴리율 (평균)	-17.04	-34.07	-46.14									
괴리율 (최대or최소)	-11.00	-16.67	-50.13									
기아												
일 자	2024/7/29	10/28	2025/4/7	6/20	7/7	8/14	11/3	2026/1/14	1/22	1/29	2/25	4/7
투자의견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BUY
TP (원)	155000	140000	13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75000	260000	230000	270000	230000
괴리율 (평균)	-34.54	-30.66	-30.49	-17.88	-21.50	-24.00	-20.38	-7.53	-40.63	-30.12	-39.27	-30.51
괴리율 (최대or최소)	-27.68	-23.79	-23.38	-15.75	-15.08	-14.36	-9.33	-1.66	-38.85	-24.35	-23.70	-21.96
일 자	6/1	7/24										
투자의견	BUY	BUY										
TP (원)	240000	210000										
괴리율 (평균)	-36.89											
괴리율 (최대or최소)	-29.08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삼성증권은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투자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부로 기업 투자 등급 기준 변경

기업		산업	
BUY (매수)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상 그리고 업종 내 상대매력도가 평균 대비 높은 수준	OVERWEIGHT(비중확대)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상승 예상
HOLD (중립)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15% 내외	NEUTRAL(중립)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과 유사한 수준 (±5%) 예상
SELL (매도)	향후 12개월간 예상 절대수익률 -15% 이하	UNDERWEIGHT(비중축소)	향후 12개월간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5% 이상 하락 예상

최근 1년간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비율 2026. 6. 30. 기준
매수(85.5%)·중립(14.5%)·매도(0%)

Samsung Securities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